

신라 성모 신화의 연구

A Study on the Mythology of 'Seongmo'(Holy Mother) of Silla

저자 (Authors)	김화경 Kim Hwakyong
출처 (Source)	민속학연구 , (48), 2021.6, 5-27 (23 pages) Korean Journal of Folk Studies , (48), 2021.6, 5-27 (23 pages)
발행처 (Publisher)	국립민속박물관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80552
APA Style	김화경 (2021). 신라 성모 신화의 연구. 민속학연구, (48), 5-27.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03 14:0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논문투고일 : 2021. 3. 25

심사완료일 : 2021. 5. 24

게재확정일 : 2021. 5. 24

신라 성모 신화의 연구

김 화 경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1. 머리말
2. 시조모로서의 성모
3. 성모 신앙의 확장
4. 맺음말

1. 머리말

선도산(仙桃山)은 높이가 불과 390여 미터에 지나지 않는 나지막한 산이다. 그런데도 그 주변에 많은 유적이 분포되어 있다. 선사시대의 문화유적 12개소와 왕릉 6개소, 분묘 6개소, 고분 4개소, 산성(山城) 1개소, 봉수지(烽燧地) 1개소 등 고고 유적이 51개소, 불교 유적 6개소 등이 조사·보고되었다.¹⁾ 이와 같은 유적들은 당시 이 산이 중요한 산신(山神) 신앙의 터전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선도산을 지키는 여신(女神)을 선도 성모와 서술 성모, 선도산 신모 등으로 불리었다.²⁾ 이 성모는 중국 황실의 딸이 남편 없이 잉태하여 진한에 와서 낳은 아이가 해동의 시조 또는 신라의 시조가 되었다고 하는 신화를 가지고 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기록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인하여 성모는 중국에서 들어온 여신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었다. 그래서 『삼국사기』를 번역한 이병도는 이것을 본시 동방 고유의 산신 신화를 모화사상가 혹은 한국인으로 중국에 이주한 자에 의하여 중국에 관계를 붙이어서 부회한 것이라고 하였으며,³⁾ 이러한 주장은 성모 전승이 산신숭배 사상과 모화사상이 습합되어 나타난 설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로 이어지기도 하였다.⁴⁾ 이렇게 중국과 관련이 있다는 인식은 성모 전승이 “진(秦)나라 사람들이 망명하여 진한 지역으로 이주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⁵⁾라는 주장으로 진전되기도 하였고, “선도 성모라는 도교적 인물의 신이한 능력과 행적에 의해 신성하고 정당한 실체인 양 미화, 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라고 하여 중국 도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였으며, 성모 신앙이 중국 서왕모(西王母) 신앙의 복사판, 즉 그것의 신라식 버전이라는 견해까지 창출하기에 이르렀다.⁷⁾

이런 견해들과는 달리, 이것을 북방 문화와 연계시키는 주장도 나왔다. 황패강은 성모 신화가 한국 신화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pre-고구려 신화의 원형으로서 박혁거세 탄생신화의 모태가 되었다고 했다.⁸⁾ 또 윤철중은 『환단고기』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신모가 부여의

1) 김선주, 2010, 「신라 선도성모 전승의 역사적 의미」, 『사학연구』(99), 한국사학회, 18쪽.

2) 김준기는 종래 대모(大母), 신모(神母), 성모(聖母) 등으로 불리는 명칭들의 혼용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모’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 고찰의 대상으로 하는 선도 성모는 ‘시조모(始祖母)’를 숭배하던 신앙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시조모’라는 제한된 성격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밝혀둔다.(김준기, 2016, 『한국의 신모신화』, 서강대출판부, 21쪽)

3) 김부식, 이병도 역주, 1983, 『삼국사기(상)』, 을유문화사, 251쪽, 후주(後註) 참조.

4) 김부식, 정구복 공역, 1997, 『역주 삼국사기 3 주석편』(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92쪽.

5) 서대석, 2001,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101쪽.

6) 정재서, 2009, 「도교 설화의 정치적 전유와 민족 정체성 — 한·중·일 3국의 경우」, 『도교문화 연구』(31), 한국도교문화학회, 19쪽.

7) 김태식, 2007, 「고대 동아시아 신앙 속의 신라」, 『문화사학』(27), 한국문화사학회, 403쪽.

8) 황패강, 1972, 『한국 서사문학 연구』, 단국대출판부, 134쪽.

박상란, 2005, 『신라와 가야의 건국신화』, 한국학술정보, 29쪽 참조.

늪수(嫩水) 가에서 떠나게 되는 것은 위인소의(爲人所疑)에 따르는 박해를 피하기 위한 피신으로 여겨진다.”⁹⁾라고 하여, 부여와 관계를 지적하였다.

한편, 선도 성모를 국가제외의 측면에서 고찰한 연구도 있다. 채미화는 유희와 선도산 신모는 시기에 따라 그 인식의 변화가 있기는 했으나, 시조모로서의 고유한 역할을 다함으로써 한국 고대사회에서 그 역사성을 나타냈다고 보았다.¹⁰⁾ 또 이장웅은 “이전에 6촌장 천강신화에 혁거세, 알영 신화가 연결되었던 건국신화가 사소(娑蘇, 선도성모) 신화를 매개로 하여 시조모가 시조를 낳았다는 건국신화로 재편된 것”¹¹⁾이라고 하였다.

이에 비해, 성모를 산신 내지는 지모신 신앙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학자도 있었다. 손진태는 성모라는 칭호는 고대 이래의 여산신 사상을 전승하여 온 것으로, 산신에 여신의 신성을 결부한 까닭은 고래의 산신이 여신이었던 것을 말한다고 보았다.¹²⁾ 또 김무조는 산신 이름을 어미, 할미라고 한 것은 이것을 여신으로 보는 산신 사상으로, 신모 성모 사상으로 구체화한 것이라고 하였다.¹³⁾ 그리고 김상기는 건국설화의 연원을 천강형과 성모형으로 구분한 다음에 “우리 민족의 개국설화에는 국조 천강 사상과 아울러 성모 전설이 또한 행하였다. 이는 천부·지모의 지모 사상과도 관련이 있는 동시에 모계제의 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니 이것으로 보면, 부계인 천자(天子, 일자(日子)) 사상보다도 이 성모 사상이 앞섰을지도 모를 일이다.”¹⁴⁾라고 하여, 성모 사상이 천강 사상보다 선행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기존의 연구는 선도 성모의 전승을 출처(出自)나 그 신격을 중심으로 한 고찰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신화학적인 입장에서 성모 신앙이 시조를 낳은 시조모인 산신을 숭배하는 신라의 자생적인 문화였으며, 또 이에 얽힌 전승도 이것을 바탕으로 한 신화적 사유에서 창출된 성처녀 신화였다는 것을 구명하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의 설정은 ‘성모’라는 용어가 한자식 명칭이라고 해서, 반드시 중국 문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실제로 중국에서 여성에게 ‘성모’란 호칭이 사용된 경우는 (1) 샤먼과 (2) 열녀, (3) 측천무후(則天武后), (4) 황태후, (5) 성모라는 이름을 가진 성모사(聖母祠)·성모묘(聖母廟) 등으로 알려져 있다.¹⁵⁾ 이런 연구 성과를 수용한다면, 신라의 성모 신화를 재래(在來)의 문화적 산물임을 구명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하겠다.

9) 윤철중, 1997, 『한국 도래 신화 연구』, 백산자료원, 46쪽.
 10) 채미화, 2016, 「한국 고대 신모와 국가 제외」, 『동북아역사논총』(52), 동북아역사재단, 17쪽.
 11) 이장웅, 2016, 「신라 사소(선도성모)신화의 변화와 국가제사」, 『신라사학보』(38), 신라사학회, 252쪽.
 12) 손진태, 1934, 「조선 고대 산신의 성(性)에 취(就)하여」 『진단학보』(1), 진단학회, 152쪽.
 13) 김무조, 1988, 『한국 신화의 원형』, 정음문화사, 51쪽.
 14) 김상기, 1964, 「국사상에 나타난 건국설화의 검토」, 『학술지』(5-12), 건국대, 10쪽.
 15) 須永敬, 2002, 「日韓國境域における聖母信仰史の民俗學的研究」, 神奈川大學 博士學位論文, 未刊行, 297쪽.

2. 시조모로서의 성모

신라의 성모 전승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김부식의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 제12 경순왕 조 기사의 다음에 이어지는 사론(史論)이었다.

[자료 1]

정화 연간에 우리 조정에서 상서 이자량을 송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는데, 신 부식이 문한의 임무를 띠고 보좌하며 갔다가 우신관에 나아가 한 집에 여선상(女仙像)이 놓인 것을 보았다. 관반학사 왕보(王輔)가 말하기를, “이는 당신 나라의 신인데 공 등은 아는가?”라고 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르기를, ㉠ “옛날 황실의 딸이 있었는데, 남편이 없이 아이를 배어서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자, 이에 바다를 건너가 진한에 이르러 아들을 낳으니, 해동의 시조 왕이 되었고, 황실의 딸은 지선(地仙)이 되어 오래도록 선도산에 있었는데, 이것이 그 여신상이다.”라고 하였다. ㉡ 신은 또 송의 사신 왕양(王襄)이 동신 성모에게 제사지내는 글을 보았는데, “현인을 잉태하여 나라를 처음 세웠다”는 구절이 있어 이에 동신이 곧 선도산 성모임을 알았다. ㉢ 그러나 그의 아들이 어느 때 왕 노릇을 한 것인지는 알지 못하였다.¹⁶⁾

이 자료는 상서 이자량이 송나라에 사신으로 갈 때 문한(文翰)으로 따라갔던 김부식이 자신의 견문과 생각을 적은 것이다. 그는 ㉠에서 송나라의 우신관에서 여선상을 보고 왕보로부터 그에 얽힌 이야기를 들었으며, ㉡에서 송나라 사신 왕양이 고려에 와서 지은 동신 성모의 제문을 상기하여 동신이 곧 선도산 성모라는 것을 알았으나, ㉢에서 성모의 아들이 어느 때 왕 노릇을 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김부식은 예종(睿宗) 11년(1116년) 7월에 송나라에 갔다가, 이듬해 8월에 돌아왔다. 이에 비해 동신 제문(東神祭文)을 지은 왕양은 송나라의 사신으로 예종 5년(1110년) 6월에 고려에 들어왔다가 같은 해 7월에 돌아갔다. 따라서 김부식이 ㉠의 이야기를 듣고, ㉡에서 6년 전에 지은 왕양의 그 제문을 상기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선도산의 성모 전승은 중국 황실의 딸이 남편이 없이 아이를 잉태하여 바다를 건너 진한에 와서 낳은 아들이 해동의 시조가 되었다는 내용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성모는 외부 세계에서 들어온 외래신(外來神)으로, 남자와 성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 시조라는 성스러운 아이를 출산한 처녀신, 곧 성처녀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부식이 동신 성모를 선도산 성모로 본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 문제

16) 김부식, 1982, 『삼국사기』, 경인문화사, 142쪽. “政和中 我朝遣尙書李資諒 入宋朝貢, 臣富弼以文翰之任輔行. 詣佑神館, 見一堂設女仙像. 館伴學士王輔曰, 此貴國之神, 公等知之乎. 遂言曰 古有帝室之女, 不夫而孕, 爲人所疑, 乃泛海, 抵辰韓生子, 爲海東始主. 帝女爲地仙, 長在仙桃山, 此其像也. 臣又見大宋國信使王襄祭東神聖母文, 有娠賢肇邦之句. 乃知東神則仙桃山神聖者也, 然而不知其子王於何時.”

에 대해, 조선 전기의 문신인 서거정(徐居正)은 그의 『필원잡기(筆苑雜記)』에서 “지금 상고하건대, 신라와 고구려, 백제의 시초에는 이런 황제의 딸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고, 다만 동명왕의 출생에 유화의 일이 있었는데, 아마도 중국에서 잘못 알고 이러한 말이 나온 것이 아닌가 한다.”¹⁷⁾라고 하였다. 이것은 그가 삼국의 초기에 중국 황실의 딸이 남편 없이 낳은 아이가 시조가 되었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명을 낳은 유화의 고사(故事)가 중국에 잘못 알려져서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하고 추정했다는 것이다. 서거정의 이런 추정은 서경(徐兢)의 『고려도경(高麗圖經)』에 동신사(東神祠)의 ‘동신 성모(東神聖母)’를 유화라고 한 기록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자료 2]

동신사는 선인문 안에 있다. 땅이 좀 평평하고 넓은데, 정전의 집이 낮고 누추하며 행랑과 월랑 30칸은 황량하게 수리하지 않은 채로 있다. 정전에는 ‘동신성모지당’이란 방(榜)이 붙어 있고 장막으로 가려 사람들이 신상(神像)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나무를 깎아 여인의 형상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부여의 처인 하신(河神)의 딸이라고 한다. 그녀가 주몽을 낳아 (그가) 고려의 시조가 되었기 때문에 제사를 모시는 것이다. 전부터 사자가 이르면 관원을 보내어 전제(奠祭)를 마련하는데 그 생뢰(牲牢)와 작헌(酌獻)은 숭산신(崧山神)에 대한 법식과 같았다.¹⁸⁾

이 자료에서는 개경의 동신사에 동신 성모의 신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유화의 모습을 나무로 깎아서 만든 목각상(木刻像)이었다는 것이다. 위의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고려에서도 고구려 시조를 낳은 유화를 ‘성모’라고 지칭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유화는 남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햇빛의 감응으로 주몽을 낳은 시조모였다. 그러므로 그녀를 성모라고 한 것은 신라의 성모 신앙이 고려에까지 계승되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실제로 이 기록 이외의 어떤 자료에서도 유화를 성모라고 지칭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로 미루어 보아 고구려에 성모 신앙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한다.

서경은 왕양이 고려를 다녀가고 난 13년 뒤의 인종(仁宗) 원년(元年, 1123년)에 고려에 사신으로 들어와 한 달 정도 개경에 머물다가 돌아가 『고려도경』을 지었다. 따라서 왕양이 지은 동신 제문은 이 동신사의 유화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그래서 김준기는 “서경이 말하는 동신 성모는 하백의 딸로 주몽을 낳았다 했으니 유화임

17) 서거정, 김익현 공역, 『필원잡기』 권1, “今考之 新羅高句麗百濟之初 無此帝女事 但東明之出 有柳花事. 恐中國誤認有此說也.” (한국고전번역원, <https://db.itkc.or.kr> 2020. 7. 25 검색)

18) 徐兢, 『고려도경』(권17) 사우(祠宇)조, “東神祠. 在宣仁門內. 地稍平廣 殿宇卑陋 廊廡三十間 荒涼不葺. 正殿榜曰東神聖母之堂 以帟幕蔽之 不令人見 神像 蓋刻木作女人狀. 或云乃夫餘妻河神女也. 以其生朱蒙 爲高麗始祖 故祀之. 舊例 使者至則遣官設奠 其牲牢酌獻 如禮崧山神式.”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 2018. 12. 18 검색)

이 분명하고, 송국(宋國) 신사(信使) 왕양(王襄)이 썼다는 제문에 기록된 동신 성모 역시 유화였을 터이다. 따라서 중국 우신관에 있었다는 여신상 또한 선도산 성모가 아닌 유화의 상이었을 것이다.”¹⁹⁾라고 하여, 우신관의 여신상마저 유화였을 것이라고 상정하였다.

한편 김상기는 이와는 달리 “선도산 여선(女仙)의 거재지(據在地)라는 선도산의 명칭을 살펴보면 이는 그 설화가 보여주듯이 도교적인 신선 사상에서 나온 것으로서 신라 시대의 서악(西岳)의 별칭이 아니었던 듯한바 아마 김부식의 기록서 묻어나와 서악에 부회된 것이 아닐까 한다.”²⁰⁾라고 하여, 선도산이 신라 시대의 이름이 아니라 김부식의 기록으로 인해 붙여졌을 것이라고 하면서, 김부식이 “송의 선도산 여선을 내세워 가지고 ‘내지동신 즉선도신성자야(乃知東神 則仙桃神聖者也.)’라고 역측한 것이 아닌가.”²¹⁾라고 하여, 송나라의 선도산 여선을 신라의 그것으로 잘못 보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하였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견해들이 타당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 까닭은 자료 1의 ㉠에서 송의 관반학사 왕보가 “옛날 황실의 딸이 남편이 없이 잉태하여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자 바다에 배를 띄워 진한으로 가서 아들을 낳으니 해동의 시조 왕이 되었고, 황실의 딸은 지선이 되어 오래도록 선도산에 있었다.”라고 하여, 분명하게 선도산의 성모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김부식이 합리적인 사고를 추구하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는 자료 1에서 왕보로부터 들은 ㉠의 이야기를 전하면서도 ㉡에서 성모의 아들이 어느 때에 왕 노릇을 했는지는 알지 못하겠다고 하였다.²²⁾ 이처럼 성모 전승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김부식은 동신사에서 받드는 유화의 제사보다는 왕양이 지은 동신 제문을 더 중시하는 유학자였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그가 그 제문에 있는 “현인을 잉태하여 나라를 처음 세웠다(娠賢肇國).”라는 구절과 우신관에 모셔진 여선인 중국 황실의 딸이 낳은 아이가 해동의 시조 왕이 되었다고 한 왕보의 설명이 같다는 점에 착안하여 동신 성모를 선도 성모로 보았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 문제는 어찌 되었든, 김부식이 송나라에 가서 직접 선도산의 여선상을 보았고, 또 그녀에 얽힌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신라에도 전해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보아야 한다. 바로 이런 유형의 이야기가 일연의 『삼국

19) 김준기, 1995, 『신모 신화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71쪽.

20) 김상기, 앞의 논문, 23쪽.

21) 김상기, 위의 논문, 24쪽.

22) 이러한 김부식의 실증적인 태도는 자료 10이 실린 사론(史論)의 바로 앞 단락의 글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그는 신라의 세 성씨 시조 신화를 실으면서 이것을 믿을 수는 없지만, 세간에서 사실로 믿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성모 신화에 등장하는 그녀의 아들이 시조가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믿지 않았을 것으로 상정된다.(김부식, 앞의 책, 142쪽. “論曰. 新羅朴氏·昔氏皆自卵生, 金氏從天入金櫃而降, 或云乘金車. 此尤詭怪, 不可信, 然世俗相傳, 爲之實事.”)

유사』 기이(紀異) 권1 신라 시조 혁거세왕 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자료 3]

- (1) 설자(說者)가 이르기를 “이(박혁거세: 인용자 주)는 서술성모가 낳은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사람의 선도성모를 찬미하는 글에 ‘어진 인물을 배어 나라를 창건했다.’라는 구절이 있으니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 (2) 계룡(鷄龍)이 상서(祥瑞)를 나타내어 알영(闕英)을 낳았으니, 또한 서술성모의 현신이 아니겠는가!²³⁾

이 자료는 (1) 설자가 성모에 관한 전승을 말한 단락과 (2) 일연이 계룡을 서술 성모의 현신으로 본 단락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설자’란 ‘해설하는 사람’,²⁴⁾ 곧 서술 성모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을 가리킨다. 그런 그는 서술 성모가 혁거세를 낳았다고 하면서, 이것을 증명하는 자료로 중국 사람이 선도 성모를 찬미하여 ‘어진 인물을 배어 나라를 창건했다.’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의 이런 진술이 사실이라면, 서술 성모 신화는 신라 시조 혁거세의 어머니에 얽혀 전해지던 이야기였다고 보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을까 한다.²⁵⁾

그런데 일연은 이와 같은 전승을 근거로 하여, “계룡이 상서를 나타내어 알영을 낳았으니, 또한 서술 성모의 현신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것은 그가 혁거세를 낳았다고 하는 서술 성모가 계룡으로 현신하여 알영까지도 낳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면서도 그는 아래와 같은 알영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자료 4]

이날(혁거세가 탄생한 날: 인용자 주) 사랑리 알영정 — 아리영정이라고도 한다. — 가에 계룡이 나타나서 왼쪽 옆구리로 여자아이를 낳으니 — “용이 나타나서 죽으니 그 배를 갈라서 얻었다.”라고도 한다. — 모습과 얼굴이 빼어나게 아름다웠다. 그러나 입술이 닭의 부리와 같았다. 바로 월성의 북천에 목욕을 시켰더니 그 부리가 떨어졌다. 이로 인하여 그 내의 이름을 발천이라고 한다.²⁶⁾

23) 최남선 편, 1946, 신정 삼국유사, 민중서관, 44쪽, “說者云 “是西述聖母之所誕也. 故中華人讚忞桃聖母 ‘有娠賢肇邦’之語是也.” 乃至雞龍現瑞產闕英, 又焉知非西述聖母之所(所)現耶.

24) 일연, 이재호 역, 1973, 『삼국유사』(1), 한국자유교육협회, 111쪽.

일연, 이민수 역, 1983,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65쪽.

일연, 리상호 역, 1990, 『삼국유사』, 과학원출판사, 89쪽. 이 책에서는 ‘설명하는 사람’이라고 번역하였다.

일연, 이범교 역, 2005,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상), 민족사, 172쪽.

25) 손진태도 성모가 신라 시조 박혁거세를 낳았다고 하는 기록은 부회 날조한 것이 아니라, 신라에는 모권의 풍습이 비교적 강하게 남아 있었으므로, 신라의 모권 전설이 유전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손진태, 앞의 논문, 154쪽)

26) 최남선 편, 앞의 책, 45쪽, “是日沙梁里闕英井(一作娥利英井)邊有雞龍現, 而左脇誕生童女(一云龍現死, 而剖其腹得之) 姿容殊麗. 然而唇似雞 將浴於月城北川其背撥落, 因名其川曰撥川.”

이 자료에는 계룡이 알영을 낳았다는 것 외에 용의 배에서 나왔다고 하는 할주(割註)가 함께 기록되어 있다. 이곳에 등장하는 ‘계룡’이란 신라 사람들의 닭 숭배 사상²⁷⁾과, 하(夏)나라 때부터 조상 숭배와 다산(多産)과 관계가 있는 동물로 믿어지던 것이 뒤에 가서는 황제를 상징하는 양(陽)의 남성 원리를 상징하게 된 용(龍)²⁸⁾과 결부되어 만들어진 추상적인 신성수(神聖獸)라고 할 수 있다.²⁹⁾ 일연이 이렇게 창출된 계룡을 서술 성모의 현신이라고 한 상정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논리의 비약은 『삼국유사』 권5 감통(感通) 제7 선도성모 수희불사(仙桃聖母隨喜佛事) 조의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5]

(1) 진평왕 대에 지혜라는 비구니가 있었는데 어진 행실이 많았다. 안흥사에 살면서 새로 불전을 수리하려고 하였으나 힘이 모자랐다. 꿈에 모양이 아름답고 구슬로 쪽머리를 장식한 한 선녀가 와서 위로하여 말하기를, “나는 바로 선도산 신모이다. 네가 불전을 수리하고자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여 금 10근을 보시하여 돕고자 하니, 마땅히 내가 있는 자리 밑에서 금을 꺼내어 주존(主尊)과 삼상(三像)을 장식하고, 벽 위에 53명의 부처와 6류 성중(六類聖衆) 및 여러 천신(天神), 5악신군(五岳神君, 신라시대의 5악(五岳)은 동쪽 토함산, 남쪽 지리산, 서쪽 계룡산, 북쪽 태백산, 중앙 부악 또는 공산이라고 한다.)을 그리고, 해마다 봄과 가을 두 계절 10일 동안 선남선녀를 다 모아 널리 일체중생을 위하여 점찰법회를 베푸는 것을 변하지 않는 규칙으로 삼도록 하라.”고 했다.(고려조의 굴불지(屈弗池)의 용이 황제의 꿈에 나타나 영취산에 약사도량을 항상 열어서 바닷길이 편안할 것을 청하였으니, 그 일이 또한 이와 같다.)

지혜가 곧 놀라 꿈에서 깨어나 여러 사람을 데리고 신을 모시는 사당(神祠)으로 가 자리 밑을 땅을 파서 황금 160량을 파내어 불전을 수리하는 일을 했으니, 이는 모두 신모가 이르는 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그 사적만은 아직도 남아 있으나 불법의 행사는 없어져 버렸다.

(2) ① (선도산) 신모는 본래 중국 황실의 딸이고, 이름은 사소(娑蘇)였다. 일찍이 신선의 술법을 배워 해동에 와서 오래 머물고 돌아가지 않았다. 이에 아버지 황제가 술개의 밭에 서신을 묶어 보내어 말하기를, “술개를 따라가다가 멈추는 곳에 집으로 지으라.”라고 했다. 사소가 서신을 받고 술개를 날려 보내자 이 선도산으로 날아와 멈추었으므로, 드디어 여기에 와서 집을 짓고 지선이 되었다. 그래서 산 이름을 서연산이라고 하였다. ② 신모가 오래도록 이 산에 머무르며 나라가 평안토록 도우니 신령스럽고 이상한 일들이 매우 많았다.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3사(三祀)의 하나로 삼았으며 등급으로는 여러 명산대천 제사의 윗자리를 차지하였다. 제

27) “其國敬鷄神而取尊 故載翎羽而表飾也.”라는 기록이 최남선 편, 앞의 책, 188쪽에 있는 것으로 보아 신라에서는 닭을 숭배하는 사상이 일찍부터 존재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하(夏)나라 때부터 조상 숭배와 다산(多産)과 관계가 있는 동물로 믿어지던 것이 뒤에 가서는 황제를 상징하는 양(陽)의 남성 원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바뀐 용(龍)이 결부되어 계룡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김철준, 1952, 「신라 상대사회의 Dual Organization(상)」 『역사학보』(7), 역사학회, 27~28쪽).

28) 出石誠彦, 1949, 『支那神話傳説の研究』, 中央公論社, 527~528쪽.

29) 용과 닭이 상통한다는 자료로는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용계원(龍鷄院)의 지명 유래담이 있다(김화경, 2019, 『한국 왕권 신화의 계보』, 지식산업사, 119~120쪽).

- 54대 경명왕(景明王)이 매사냥을 좋아하여 일찍이 이 산에 올라서 매를 놓았으나 잃어버렸다. 신모에게 기도하여 말하기를 “만약 매를 찾으면 마땅히 작호를 봉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얼마 안 되어, 매가 날아와서 책상 위에 앉으므로, 신모를 대왕의 직위에 봉하였다.
- (3) ③ 신모가 처음 진한에 와서 신성한 아이를 낳아 동국의 처음 임금이 되었으니, 아마 혁거세와 알영의 두 성인이 태어난 근본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계룡·계림·백마 등으로 일컬으니 님은 서쪽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신모가) ④ 일찍이 여러 하늘의 선녀[天仙]으로 하여금 비단을 짜게 하여 붉은 물감을 물들여 조복을 만들어 그 남편에게 주었다. 이로 인하여 나라 사람들이 그녀의 신비스러운 영험을 알게 되었다.
- (4) 또한 국사에서 사신이 말하였다. 김부식이 정화(政和) 연간(1111-1117)에 일찍이 사신으로 송나라에 들어갔는데 우신관에 가니 한 사당에 여선상(女仙像)이 모셔져 있었다. 관반학사 왕보가 말하기를 “이 분은 당신 나라의 신인데 공은 아는가?”라고 했다. 이어서 말하기를 ⑤ “옛날에 중국 황실의 딸이 바다를 건너 진한에 달아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해동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황실의) 딸은 지선(地仙)이 되어 오래도록 선도산에 있었으니 이것이 그 상이다.”라고 하였다.
- ⑥ 또한 송나라 사신 왕양이 우리나라에 와서 동신성모를 제사지냈는데 제문에 “어진 이를 낳아 나라를 세웠다”라는 구절이 있었다. 지금 (신모가) 능히 금을 보시하여 부처를 받들고 중생을 위하여 향화(香火)를 열어 진량(津梁)을 만들었으니 어찌 장생법(長生法)만 많이 배워서 몽매함에 얽매일 것인가.³⁰⁾

이것은 (1) 선도산 성모가 지혜의 불사를 도와준 것과 (2) 선도산 성모의 출자(出自)와 호국 및 이적(異蹟) (3) 성스러운 아이의 탄생과 건국, (4) 김부식의 『삼국사기』 기록 등의 네 단락으로 구분된다. 일연은 이런 이 자료의 세 번째 단락 밑줄을 그은 ③에서 “신모가 처음 진한에 와서 신성한 아이를 낳아 동국의 처음 임금이 되었으니, 아마 혁거세와 알영의 두 성인이 태어난 근본이었을 것이다.”라고 하여, 혁거세와 알영이 다 같이 신모로부터 태어났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런 서술은 앞 자료 3의 단락 (2)에서 알영을 낳은 계룡을 서술 성모의 현신이라고 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표현이다.

하지만 위의 자료 단락 (3)은 김부식이 『삼국사기』에서 기록한 선도 성모 이야기, 곧 자료

30) 최남선 편, 앞의 책, 216~217쪽. “真平王朝 有比丘尼名智惠 多賢行. 住安興寺 擬新修佛殿而力未也. 夢一女仙風儀婉約珠翠飾鬢 來慰曰. “我是仙桃山神母也. 喜汝欲修佛殿. 願施金十斤以助之. 宜取金於予座下 糶黠主尊三像, 壁上繪五十三佛 六類聖衆 及諸天神·五岳神君.(羅時五岳謂, 東吐含山, 南智異山, 西雞龍, 北太伯, 中父岳亦云公山也.) 每春秋二季之十日 叢善善男善女, 廣爲一切校勸 舍靈設占察法會以爲恒規.(奉朝屈弗池龍 託夢於帝 請於靈鷲山長開藥師道場 平海途, 其事亦同.) 惠乃驚覺, 率徒往神祠座下 掘得黃金一百六十兩, 克就乃功, 皆依神母所諭. 其事唯存 而法事廢矣. 神母奉中國帝室之女. 名娑蘇, 早得神仙之術 歸止海東 久而不還. 父皇寄書繫足云. “隨薦所止爲家.” 蘇得書放鳶 飛到此山而止. 遂來宅爲地仙. 故名西嵩山. 神母久擲茲山 鎮祐邦國 靈異甚多, 有國已來 常爲三祀之一, 秩在群望之上. 第五十四景明王好使鷹, 嘗登此放鷹而失之. 禱於神母曰, “若得鷹當封爵.” 俄而鷹飛來止机上, 因封爵大王焉. 其始到辰韓也 生聖子爲東國始君, 蓋赫居·闕英二聖之所自也. 故稱雞龍·雞林·白馬等雞屬西故也. 嘗使諸天仙織羅 緋染作朝衣 贈其夫, 國人因此始知神驗. 又國史史臣曰, 軾政和中 嘗奉使人宋, 詣佑神館 有一堂 設女仙像. 館伴學士王黼曰, “此是貴國之神, 公知之乎.” 遂言曰, “古有中國帝室之女 泛海抵辰韓, 生子爲海東始祖, 女爲地仙 長在仙桃山, 此其像也. 又大宋國使王襄到我朝 祭東神聖母 女有娠賢肇邦之句.” 今能施金奉佛爲舍生開香火津梁, 豈徒學長生而囿於冥濛者哉.”

1을 옮겨 적은 것이다. 특히 ⑤와 ⑥은 김부식의 견문을 그대로 전사하였다. 그러면서 (1)의 ①에서는 서연산에 얽힌 이야기, 중국 황실의 딸인 사소가 신선의 술법을 배워 해동에 왔는데, 황제가 술개를 보내면서 이 새가 머무는 곳에 정착하라고 했으므로 선도산에 머물며 지선이 되었다는 것을 첨가했다. 이것은 자료 1의 ㉠보다 내용을 한층 더 부연한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 황실의 딸 이름이 ‘사소’였고, 또 그녀가 정착한 선도산은 황제가 보낸 술개가 머문 곳이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삼국사기』에 없는 내용을 첨가하면서도, 사소가 아이를 배어 사람들로 부터 의심을 받자 그것을 피해서 진한으로 왔다는 내용은 옮겨 적지 않았다. 이처럼 첨삭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이 기록이 신라에도 사소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음을 드러낸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전승에 대한 일연의 생각을 서술한 단락 (2)의 ④에서는 “일찍이 여러 하늘의 선녀로 하여금 비단을 짜게 하여 붉은 물감을 물들여 조복을 만들어 그 남편에게 주었다. 이로 인하여 나라 사람들이 그녀의 신비스러운 영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여, 그녀에게 남편이 존재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다음 단락 (3) 김부식이 남편 없이 아이를 낳았다고 한 것과는 분명하게 상치된다. 물론 일연이 기술한 것처럼 당시에 선도 성모에게 남편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승되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보다는 일연이 자기 나름대로 김부식의 기록을 윤색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지적은 남편 없이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신화적 표현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일연으로서는 하늘의 선녀들이 조복을 만들어준 남편이 있었다고 표현을 바꾸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³¹⁾ 이와 같은 추정은 자료 4의 (2)에서 계룡이 알영을 낳은 것을 성모의 현신으로 보기도 하였고, 위의 자료 ③에서 혁거세와 알영을 다 신모가 낳았다고 하는 등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고 있다는 것과는 맥락을 같이한다. 쉽게 말해 그가 『삼국유사』를 저술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료를 윤색하고 해석했다는 것이다.³²⁾ 그러므로 원래의 선도 성모 신화는 남편이 없이 처녀로 낳은 아이가 나라의 시조가 되었다고 하는 시조모의 성처녀 신화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선도산 성모 신화와 비슷한 자료가 가락국에도 존재했다는 사실이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29 고령현 건치 연혁 조에 실린 정견모주(政見母主)의 신화에서 확인이 된다.

31) 천혜숙과 윤미란도 이미 이와 비슷한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 천혜숙은 “‘선도성무수희불사’ 기사 말미에서 김부식의 ‘논(論)’을 인용한 일연은 ‘성모가 남편 없이 아이를 배어 남에게 의심을 받’았다는 내용을 빼 버렸다.”라고 하였다 (천혜숙, 2007, 「서술성모의 신화적 정체」, 『동아시아고대학』(16), 동아시아고대학회, 181쪽), 윤미란은 “남편 없이 상스러운 잉태를 한 것으로 그려진 선도 성모이지만, ‘신모는 일찍이 제천(諸天)의 선녀에게 비단을 짜게 해서 붉은색으로 물들여 조복을 만들어 그 남편에게 주었다’는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였다(윤미란, 2007, 「선도 성모의 형성과 그 의미」, 『한국학연구』(16),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98쪽).

32) 이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일연의 생각을 신화 자료의 일부로 파악하려는 시도는 재고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지적해둔다.

[자료 6]

최치원의 『석이정전』을 살펴보면, ① 가야산신 정견모주는 곧 천신인 이비가에 감응되어, 대가야의 왕 뇌질주일과 금관국의 왕 뇌질청예 두 사람을 낳았다. 즉 뇌질주일은 이진아시왕(伊珍阿豉王)의 별칭이고, 청예는 수로왕의 별칭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가락국 옛 기록의 ‘여섯 알의 전설’과 더불어 모두 허황한 것이어서 믿을 수가 없다. 또 『석순응전』에는 ② 대가야국의 월광태자(月光太子)는 정견(正見)의 10대손이요, 그의 아버지는 이뇌왕이며, 신라에 혼처를 구하여 이찬(迎夷粲) 비지배(比枝輩)의 딸을 맞이하여 태자를 낳았으니, 이뇌왕은 뇌질주일의 8대손이라 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참고할 것이 못된다.³³⁾

이것은 최치원(崔致遠)의 『석이정전(釋利貞傳)』과 『석순응전(釋順應傳)』에서 인용된 자료이다. 전자의 밑줄 친 ①에서는 산신인 정견모주가 천신 이비가(夷毗訶)의 감응으로 인해서 대가야의 뇌질주일(惱室朱日)과 금관국의 뇌질청예(惱室靑裔)를 낳았다고 하였고, 후자의 ②에서는 이뇌왕(異腦王)이 뇌질주일의 8대손이라고 하였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15세기에 노사신(盧思愼)과 양성지(梁誠之) 등이 편찬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렸다는 사실은 최치원이 생존했던 9세기 무렵에 이것이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유사한 모티프의 성모 신화 역시 신라 시대에 존재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³⁴⁾

이러한 정견모주 신화가 성모 신화처럼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신화는 왜 이렇게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없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모티프를 차용하게 되었을까?³⁵⁾ 이 문제에 대하여 황패강은 천(天)으로 상징된 영적 존재인 원부(原夫)가 영매(靈媒)를 통하여 체매(體媒, 여체(女體))에 투입되어 육신의 인물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³⁶⁾

그러나 신화학에서는 이처럼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예로부터 출생은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계층에서 태어났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신분제도가 엄격했던 사회의 지배계층에게는 보통사람들과 구분되는 탄생담이 요구되었다. 그래야만 백

33) 朝鮮史學會 編, 1930, 『新增東國輿地勝覽』(2), 卷29, 朝鮮史學會, 27~28쪽. “按崔致遠釋利貞傳云 伽耶山神政見母主 乃爲天神夷毗訶之所感 生大伽耶王惱室朱日 金官國王惱室靑裔二人. 則惱室朱日爲伊珍阿豉王之別稱 靑裔爲首露王之別稱. 然與麗洛國古記六卵之說 俱荒誕不可信. 又釋順應傳 大伽耶國月光太子 乃貞見之十世孫. 父曰異腦王 求婚于新羅. 迎夷粲比枝輩之女 而生太子 則異腦王. 乃惱室朱日之八世孫也. 然亦不可考.”

34) 이런 의미에서 성모 신화가 후대에 책상 위에서 습합된 것이라고 지적한 미시나 아키히데의 주장(三品彰英, 1975, 『三國遺事考證(上)』, 塙書房, 438쪽)은 근거가 없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35) 천혜숙은 “서술성모가 두 성아(聖兒)를 낳음은 생물학적인 출산이 아니라 인식적·신화적 출산이다.”라고 하여, 일연이 서술성모를 대모신(大母神)의 존재로 인식했다고 보았다(천혜숙, 2007, 『서술성모의 신화적 정체』 『동아시아고대학』(16), 동아시아고대학회, 200쪽).

36) 황패강, 앞의 책, 134~145쪽.

성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나 지배계층이 될 수 있었다. 곧 권력을 장악한 집단의 조상들에게는 무엇인가 예사 사람들과는 다른 탄생의 이야기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 조상의 탄생이 보통사람들의 그것과 구별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왕이나 지배집단의 우월성과 신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조상들의 탄생부터가 신비롭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이다. 신비한 탄생담을 가짐으로써 지배집단의 조상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존재로 받아들여졌고, 권력을 장악한 왕은 그 권력의 절대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³⁷⁾

이 문제는 어찌 되었든, 이지영은 선도산 성모나 정견모주와 같이 여산신이 건국 시조를 낳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주족인 지배집단들 사이에 전승되는 신화와는 달리 토착집단에서는 또 다른 유형의 신화가 전승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다.³⁸⁾ 실제로 이들 신화는 이 일대에 선주(先住)하던 집단의 전승이었을 가능성이 짙다. 따라서 선도산 성모 신화가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고 보기보다는 신라 재래(在來)의 전승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다.

이제까지 신라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여신이 남편이 없이 낳은 아이가 시조가 되었고, 그녀는 뒤에 선도산의 지선이 되어 성모 또는 신모로 받아들여진 성모 신앙과 그에 얽힌 신화가 신라 시대에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이러한 성모 전승과 그 숭배는 신라의 영역이었던 한국 남부지방의 고유 신앙이었을 것으로 상정하였다. 이렇게 상정할 수 있는 근거는 중국에서 사용된 ‘성모’란 명칭이 시조모를 가리킨 예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³⁹⁾ 따라서 성모 신앙이란 시조모인 산신을 숭배한 신라의 고유 신앙이었으며, 이것을 중국의 서왕모 전승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할 수 있다.⁴⁰⁾

3. 성모 신앙의 확장

나라의 시조를 낳은 시조모로 받아들여지던 성모는 점차 그 기능이 확장되어 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흔적은 일연이 기록한 앞의 자료 5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는 ②에서 “신모

37) 김화경, 2009, 앞의 책, 63~64쪽.

38) 이지영, 1995, 『한국 신화의 신격 유래에 관한 연구』, 태학사, 170쪽.

39) 須永敬, 앞의 논문, 291쪽.

중국에서도 강원(姜源)이 발자국에 감응되어 후직(後稷)을 낳아서 ‘불부이임(不夫而孕)’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성모(聖母)’란 호칭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아, ‘선도 성모’는 신라 고유의 시조모 숭배 신앙이었다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袁珂, 전인초 공역, 1992, 『중국의 신화 전설』, 민음사, 389~392쪽 참조).

40) 중국의 서왕모는 지모신의 신격을 지니고 있으나 시조를 낳지는 않았으므로, 신라의 성모신과는 분명하게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森雅子, 2006, 『西王母의原像』, 慶應義塾大學出版會), 68~71쪽).

가 오래도록 이 산에 머무르며 나라가 평안하도록 도우니, 신령스럽고 이상한 일들이 매우 많았다.”라고 하면서, 이런 예들로 단락 (1) 진평왕 대에 비구니 지혜에게 불전을 수리하도록 도와준 것과 단락 (2) 제54대 경명왕이 이 산에 잃어버렸던 매를 찾아준 것을 들었다.

성모의 이와 같은 기능 확장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남해왕(南解王)의 왕비인 운제부인(雲帝夫人)에 관한 기사이다.

[자료 7]

남해거서간은 차차웅이라고도 한다. 이는 존장(尊長)의 칭호로서 오직 왕만 이렇게 불렸다. 아버지는 혁거세이고 어머니는 알영부인이며, 왕비는 운제부인(雲帝夫人)이다.(한편으로 운제(雲梯)라고 한다. 지금의 영일현(迎日縣) 서쪽에 운제산 성모(雲梯山聖母)가 있는데, 한발에 기도를 드리면 감응이 있다.)⁴¹⁾

운제산의 성모 이야기는 밑줄 그은 곳에서 보는 것처럼 『삼국유사』 권1 기이(紀異) 제1 남해왕 조에 할주(割註)로 실려 있다. 남해왕의 왕비인 운제부인을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아루부인’⁴²⁾이라고 하였으나, 위의 자료에서는 ‘운제(雲梯)’라고 하였다. 후자의 이름이 원래 부터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뒤에 운제산(雲梯山) 성모에서 연유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일연이 “지금의 영일현 서쪽에 운제산이 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12세기에 이 이름이 사용되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전승은 일연이 얻어들은 자료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려 시대 성모 신앙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한다.

미시나 아키히데(三品彰英)는 이 ‘운제’란 이름이 단군신화에 보이는 운사(雲師)와 가장 가깝다고 하면서, 『좌전(左傳)』에 “황제 씨는 구름을 다스렸던 까닭에 운사라고 했다(皇帝氏以雲紀 故爲雲師).”라는 것이 있고, 중국의 농경 신화에도 우신(雨神)으로 중시되어 백관의 우두머리로 운사를 두었다고 전하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래서 그는 “운제(雲帝)가 주문(注文)에 보이는 운제(雲梯)라고 한다면, 선인(仙人)이 승천(昇天)할 때에 올라가는 구름사다리, 다음에 보이는 운제산 성모 전승에 부합되는 것이며, 하늘에의 가교(架橋)인 무지개 신앙⁴³⁾과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운제(雲梯)로부터 운제(雲帝)란 이름이 생긴 것인가. 또는 운제산 성모가 한발에 기도하면 감응하는 직능이 전해지고 있는 것처럼, 운사와 마찬가지로 우신의 신앙을 나타내게 된 것인가.”⁴⁴⁾라고 하여, 두 가지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41) 최남선 편, 앞의 책, 45쪽. “南解居西干 亦云次次雄. 是尊長之稱 唯此王稱之. 父赫居世 母闕英夫人 妃雲帝夫人.(一作雲梯 今迎日縣西有 雲梯山聖母 祈旱有應.)”

42) 김부식, 앞의 책, 2쪽. “一云 阿婁夫人.”

43) 한국의 무지개 전승에 관해서는 오바야시 타로(大林太良)의 저서에 그 일부가 언급되어 있다(大林太良, 1999, 『銀河の道 虹の架け橋』, 小學館, 293~295쪽).

44) 三品彰英, 앞의 책, 467쪽.

이러한 그의 지적은 ‘운제(雲帝)’가 비를 관장하는 우신인 ‘운사(雲師)’와 관련이 있으며, 또 무지개에 대한 신앙과 연결되는 ‘운제산 성모(雲梯山聖母)’에서 연유된 이름인 듯하다는 추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와 같은 미시나의 견해는 한국 고대 신앙의 한 단면을 해명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해도 지장이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시조를 낳았다고 하는 성모에게 이렇게 한발을 관장하는 직능이 첨가된 것은 그 뒤에 시조모가 나라와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호국신(護國神)으로 그 기능이 확장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시조모인 산신 승배의 성모 신앙이 시대가 흐름에 따라 호국의 기능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호국 사상의 하나가 한발에 감응이 있다는 우신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그런데 고려 시대의 이와 같은 성모 신앙은 조선 시대에 접어들어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증거의 하나가 바로 김종직(金宗直)의 『점필재집(佔畢齋集)』 기행록의 ‘유두류록(遊頭流錄)’의 다음과 같은 기록이다.

[자료 8]

해공과 법종이 먼저 성모 묘(聖母廟)에 들어가서 소불(小佛)을 손에 들고 ① (날씨를) 개이게 해달라고 하며 실없이 말했다. 나는 처음에 이를 장난으로 여기다가 물어보니 말하기를, “세속에서 이렇게 하면 날이 갠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손발을 씻고 관대를 정제한 다음 석등을 잡고 올라가 사당에 들어가서 술과 과일을 올리고 성모에게 다음과 같이 고하였다. …… 종략 …… 제사를 마치고는 함께 신위(神位) 앞에 앉아서 술을 두어 잔씩 나누고 파하였다. 그 사옥(祠屋)은 다만 3칸으로 되었는데, 엄천리 사람들이 고쳐 지은 것으로, 이 또한 판자 지붕에다 못을 박아놓아서 매우 튼튼하였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바람에 날릴 수밖에 없었다. 두 중이 그 벽에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 이것이 이른바 성모의 옛 석상(石像)이란 것이었다. 그런데 미목(眉目)과 쪽 머리[髻鬢]에는 모두 분대(粉黛)를 발라놓았고 목에는 결획(缺畫)이 있으므로 그 사실을 물어보니 말하기를, ② “태조가 인월역에서 왜구와 싸워 승첩을 거두었던 해에 왜구가 이 봉우리에 올라와 그 곳을 찢고 갔으므로, 후인이 풀을 발라서 다시 붙여놓은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 동편으로 움푹 들어간 석루에는 해공 등이 희롱하던 소불이 있는데, 이를 국사라 호칭하며, 세속에서는 성모의 음부(淫夫)라고 전해오고 있었다. 그래서 또 “성모는 세속에서 무슨 신이라 하는가?”라고 물어보았더니, 대답하기를, “석가의 어머니인 마야부인입니다.”라고 하였다. 아, 이런 일이 있다니. 서축(西竺)과 우리 동방은 천백의 세계로 막혀 있는데, 가유국(迦維國)의 부인이 어떻게 이 땅의 귀신이 될 수 있겠는가. 내가 일찍이 ③ 이승휴의 『제왕운기』를 읽어보니, ‘성모가 선사를 명했다 [聖母命詔師]’는 주석에 이르기를, “지금 지리산의 천왕이니, 바로 고려 태조의 비(妣)인 위숙왕후를 가리킨다.”라고 하였다. 이는 곧 고려 사람들이 선도성모에 관한 말을 익히 듣고서 자기 임금의 계통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만들어낸 것인데, 이승휴는 그 말을 믿고 『제왕운기』에 기록해 놓았으니, 이 또한 고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더구나 승려들의 세상을 현혹하는 황당무계한 말이니. 또 이미 마야부인이라 하고서 국사로서 더럽혔으니, 그 음란하고 거만하여 불경스

러움이 무엇이 이보다 더 심하겠는가. 이것을 변론하지 않을 수 없다.⁴⁵⁾

이것은 김종직이 함양군수(咸陽郡守)로 있을 때인 1472년에 백두대간에서 흘러나왔다고 하여 두류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지리산을 둘러본 ‘유두류록(遊頭流錄)’에 적은 것이다. 이런 이 자료의 ①에서는 성모 묘에 들어가 제(祭)를 지내면서 날씨를 개이게 해달라고 빌었다고 하였다. 성리학자인 김종직이 처음에는 빌면 날이 갠다고 하는 속언(俗言)을 믿지 않다가, 자신이 성모에게 정중하게 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녀의 권능을 인정한 것일지도 모른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변화가 무쌍한 산정에서 어쩔 수 없이 성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②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왜구들에 의해서 훼손된 성모상을 풀로 붙여놓았다고 하였다. 왜구들이 이런 만행을 저지른 것은 그들이 이성계(李成桂)에게 패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왜구들의 성모상 훼손은 그들의 패전에 대한 앙갚음이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위의 이야기는 성모가 나라를 지켜주는 호국신으로 자리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그것은 ③에서 김종직이 언급한 이승휴의 『제왕운기』에서 인용한 문장의 사실성 여부이다. 이 문장에는, “성모가 선사를 명했다.”라는 주석에 이르기를, ‘지금 지리산의 천왕이니, 바로 고려 태조의 비(妣)인 위숙왕후를 가리킨다.’라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왕운기(帝王韻記)』에는 “바로 고려 태조의 비인 위숙왕후를 가리킨다(乃指高麗太祖之妣威肅王后也).”라는 문장이 없다. 이에 대하여 김상기는 “『제왕운기』의 원주(原註)가 아니라(원주는 이승휴의 자주(自註)인 만큼 그 본조(本朝)의 태조를 가리켜 고려 태조라 하지 아니할 것도 물론이러니와) 점필재가 스스로 자기의 의견을 써 놓은 것이 분명하다.”⁴⁶⁾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김일손(金駟孫)이 그의 스승 점필재가 『제왕운기』에 징거(徵據)하여 지리산의 신으로서 고려 태조의 어머니인 위숙왕후라고 했다는 점에 착안해서, “현왕(賢王)을 생육

45) 金宗直, 『佔畢齋文集』 卷2, 紀行錄 遊頭流錄. “空宗先詣聖母廟 捧小佛 呼晴以弄之. 初以爲戲 問之. 云俗云如是則天晴. 余冠帶盥洗 捫石磴入廟 以酒果告于聖母曰. ……中略……醉已 共坐神位前 酒數行而罷. 祠屋但三間 巖川里人所改創 亦板屋 下釘甚固. 不如是 則爲風所揭也. 有二僧繪畫其壁 所謂聖母乃石像. 而眉目鬢髮 皆塗以粉黛. 項有缺畫 問之. 云太祖捷引月之歲 倭寇登此峯 斫之而去 後人 和黏復屬之. 東偏陷石壘 空等所弄佛在焉. 是號國師 俗傳聖母之淫夫. 又問聖母 世謂之何神也. 曰釋迦之母摩耶夫人也. 噫有是哉. 西竺與東震. 猶隔千百世界 迦維國婦人 焉得爲茲土之神. 余嘗讀李承休帝王韻記 聖母命詠師 註云 今智異天王. 乃指高麗太祖之妣威肅王后也. 高麗人習聞仙桃聖母之說 欲神其君之系 創爲是談 承休信之 筆之韻記 此亦不可考徵. 矧縹緲妄誕幻惑之言乎. 且既謂之摩耶 而汚穢以國師 其褻慢不敬 孰甚焉 此不可不辨.”(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 2019. 1. 20 검색)

46) 김상기, 앞의 논문, 22쪽.
이 문제에 대해서는 권태효(權泰孝)가 그의 저서에서 자세하게 논의한 바 있음을 밝혀둔다(권태효, 2002, 『한국의 거인설화』, 역락, 184~186쪽).

하여 삼한통일(후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룩케 한 위숙왕후가 민간 신앙상 성모로 받들어지는 사이에 또한 지리산 성모에 배합케 되어 위숙왕후가 곧 지리산 성모라는 설이 따로이 전래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⁴⁷⁾라고 하여, 위숙왕후가 지리산 성모로 정착하는 과정을 재구(再構)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김상기의 상정은 김종직이 살고 있었을 때(1478년) 나온 『동문선(東文選)』에서도 그 타당성을 엿볼 수 있다.

[자료 10]

옛날에 개국조사 도선이, 지리산 주인 성모천왕이, “만일 세 개의 암자를 창립하면 삼한이 합하여 한 나라가 되고 전쟁이 저절로 종식될 것이다.”라고 한 비밀스러운 부탁으로 인하여 이에 세 개의 암자를 창건하였으니, 곧 지금의 선암사·운암사와 이 절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이 절이 국가에 대하여 큰 보탬이 되는 것은 고금 사람이 함께 아는 일이다.⁴⁸⁾

이것은 성종(成宗)의 명을 받들어 서거정(徐居正)과 노사신(盧思愼) 등이 편찬한 시문전집인 『동문선』 권 제68 영봉산 용암사 중창기(靈鳳山龍巖寺重創記)이다.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9세기 말엽 여말선초(麗末鮮初)에 전라도 영암 출신으로 승려이면서도 풍수지리설의 대가로 알려진 도선이 지리산의 성모천왕이 이 일대에 세 암자를 지으면 삼한이 통일될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는 예언은 왕건(王建)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정이 허용된다면, 지리산의 성모 전승이 어떤 형태로든 위숙왕후와 결부되어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바로 이런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이다.

[자료 11]

성모사(聖母祠)의 사당이 둘이다. 하나는 지리산 천왕봉 위에 있고, 하나는 군 남쪽 엄천리에 있다. 고려 이승휴의 『제왕운기』에, “성모는 태조의 어머니인 위숙왕후라 한다.”라고 하였다.⁴⁹⁾

이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제31 경상도 함양군(咸陽郡) 사묘(祠廟) 조에 실려 있는 자료이다. 여기에서도 이승휴의 『제왕운기』에 지리산의 성모가 위숙왕후라고 했다는 것이다.

47) 김상기, 앞의 논문, 22쪽.

48) 서거정 공찬, <http://db.itkc.or.kr>. 2018. 12. 18 검색. 『東文選』 卷68 靈鳳山龍巖寺重創記. “昔開國祖師道誥 因智異山主聖母天王密囑曰 若創立三巖寺 則三韓合爲一國 戰伐自然息矣. 於是創三巖寺 卽今仙巖, 雲巖與此寺是也. 故此寺之於國家 爲大裨補 古今人之所共知也.”

49) 朝鮮史學會 編, 1930, 『新增東國輿地勝覽』(2) 卷31, 朝鮮史學會, 6쪽. “聖母祠 祠宇二. 一在智異山天王峯上 一在郡南巖川里. 高麗李承休帝王韻記云 太祖之母威肅王后.”

이런 기록이 16세기까지 이어진 것을 보면, 지리산 성모가 위숙왕후였다는 이야기가 조선 시대까지 남아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이렇게 지리산 성모가 고려 태조의 어머니였다고 하는 전승은 신라의 성모 신앙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므로 신라의 성모 신앙은 나라의 시조를 낳은 시조모인 산신에 대한 숭배 사상을 바탕으로 하던 것이었는데, 시대의 흐름과 함께 나라를 지켜주는 호국신으로 그 기능이 확장되어, 이것이 고려 태조의 어머니인 위숙왕후에 연관된 이야기로 후대에까지 전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할 수 있다.

4. 맺음말

본 연구는 신라의 성모 신화가 그들이 시조모인 산신을 숭배하는 고유 신앙에서 창출되었다는 사실을 해명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다시 말해 성모 신화가 중국의 도교적인 영향이나 서왕모 전승과는 무관한, 신라의 자생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졌음을 밝히려 고 했다는 것이다. 이런 목적에서 이루어진 성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삼국사기』에 실린 성모 신화는 김부식이 송나라의 우신관에 갔을 때 관반학사 왕보로부터 들은 것으로, 중국 황실의 딸이 남편이 없이 임신하여 진한에 가서 낳은 아이가 해동의 시조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이 신화는 시조를 낳은 시조모인 산신을 숭배하는 신앙에서 만들어진 전승으로, 외래의 여신이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고 출산한 아이가 시조가 되었다고 하는 성처녀 신화였다고 상정하였다. 하지만 이 신화의 주인공인 선도 성모를 동신 성모로 간주한 김부식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이들을 동일시한 것은 그가 합리적인 사유를 추구하던 유학자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즉 김부식은 동신 제문(東神祭文)의 “현인을 잉태하여 나라를 처음 세웠다(娠賢肇國).”라는 구절과 우신관에 모셔진 여선(女仙)인 중국 황실의 딸이 낳은 아이가 해동의 시조왕이 되었다고 한 왕보의 설명이 같다는 점을 중시하여 동신 성모를 선도 성모로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김부식이 송나라에서 들은 성모 신화가 신라에서도 전승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일연의 『삼국유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윤색하고 해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즉 일연은 알영을 낳은 계룡을 성모의 현신으로 보기도 하였고, 혁거세와 알영을 신모가 낳았다고도 했으며, 남편이 없이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신화적 표현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는지 하늘의 선녀들이 남편의 조복을 만들어주었다고 표현을 바

꾸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일연의 자의적인 첨삭 내지는 해석을 하나의 전승으로 받아들여려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삼국유사』의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자료가 어떤 것이고, 일연이 첨삭한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적시하였다.

셋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고려 시대에 기록된 것이어서, 성모 신화와 그 신앙이 과연 신라에도 전승되고 있었을까 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석이정전』에 실린 정견모주 신화를 근거로 하여, 이 유형의 이야기가 최치원이 살았던 9세기 무렵에 신라 지역에 전승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구명했다.

넷째, 이와 같은 고찰을 통해서 시조모인 산신을 숭배하던 성모 신앙과 그 신화는 선주(先住)하던 집단이 가졌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신라 고유문화의 하나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러한 견해는 ‘성모(聖母)’라는 용어가 한자식 명칭이기는 하지만, 중국에서는 시조모를 ‘성모’라고 부른 사례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 상당한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신라에서 시조를 낳은 시조모인 산신을 성모로 숭배하던 신앙은 그 뒤에 기능이 확장되어 호국신의 신격까지 아울러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상정하였다. 이렇게 신격이 확장된 예로 남해왕의 왕비인 운제부인 전승과 지리산 성모 전승들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특히 지리산 성모 전승이 고려 태조의 어머니인 위숙왕후가 성모로 받아들여졌으며, 또 왜구를 물리친 이성계와 연관된 것은 신라의 성모 신앙이 조선 시대까지 계승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가진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 권태효, 2002, 『한국의 거인설화』, 역락.
- 김무조, 1988, 『한국 신화의 원형』, 정음문화사.
- 김부식, 1982, 『삼국사기』, 경인문화사.
- _____, 이병도 역주, 1983, 『삼국사기』(상), 을유문화사.
- _____, 정구복 공역, 1997, 『삼국사기』(3, 주석편(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상기, 1964, 「국사 상에 나타난 건국설화의 검토」, 『학술지』(5-1), 건국대학교, 13~51쪽.
- 김선주, 2010, 「신라 선도 성모 전승의 역사적 의미」, 『사학연구』(99), 한국사학회, 1~33쪽.
- 김준기, 1995, 「신모 신화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16, 『한국의 신모 신화』, 서강대출판부.
- 김태식, 2007, 「고대 동아시아 신앙 속의 신라」, 『문화사학』(27), 한국문화사학회, 381~417쪽.
- 박상란, 2005, 『신라와 가야의 건국신화』, 한국학술정보.
- 서대석, 2001,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 손진태, 1934, 「조선 고대 산신의 성에 취하여」, 『진단학보』(1), 진단학회, 145~155쪽.
- 윤미란, 2007, 「선도 성모의 형성과 그 의미」, 『한국학연구』(16),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89~107쪽.
- 윤철중, 1997, 『한국 도래 신화 연구』, 백산자료원.
- 이장웅, 2016, 「신라 사소(선도성모)신화의 변화와 국가제사」, 『신라사학보』(38), 신라사학회, 215~261쪽.
- 이지영, 1995, 『한국 신화의 신격 유래에 관한 연구』, 태학사.
- 일연, 리상호 역, 1990, 『삼국유사』, 과학원출판사.
- _____, 이민수 역, 1983,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 _____, 이범교 역, 2005,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상), 민족사.
- _____, 이재호 역, 1973, 『삼국유사』(1), 한국자유교육협회.
- 정재서, 2009, 「도교 설화의 정치적 전유와 민족 정체성 — 한·중·일 3국의 경우」, 『도교문화연구』(31), 한국도교문화학회, 9~28쪽.
- 최남선 편, 1946, 신정 삼국유사, 민중서관, 44쪽, “說者云 “是西述聖母之所誕也。故中華人讚忞桃聖母 ‘有娠賢肇邦’之語是也。” 乃至雞龍現瑞產闕英, 又焉知非西述聖母之听(所)現耶.
- 채미화, 2016, 「한국 고대 신모와 국가제의」 『동북아역사논총』(52), 동북아역사재단, 7~42쪽.
- 천혜숙, 2007, 「서술 성모의 신화적 정체」 『동아시아 고대학』(16), 동아시아고대학회, 173~206쪽.
- 朝鮮史學會 編, 1930, 『新增東國輿地勝覽』(2) 卷29, 朝鮮史學會.
- _____, 1930, 『新增東國輿地勝覽』(2) 卷31, 朝鮮史學會.
- 袁珂, 전인초 공역, 1992, 『중국의 신화 전설』, 민음사.
- 金宗直, 『佔畢齋集文集』 卷2, 紀行錄 遊頭流錄,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 2019. 1. 20 검색.
- 徐居正, 『筆苑雜記』 권1, 한국고전번역원, <https://db.itkc.or.kr>, 2020. 7. 25 검색.
- 徐兢, 『高麗圖經』 권17 사우조, 한국고전번역원, <https://db.itkc.or.kr>, 2018. 12. 18 검색.
- 大林太良, 1999, 『銀河の道 虹の架け橋』, 小學館.
- 森雅子, 2005, 『西王母の原像』, 慶應義塾大學出版會.
- 三品彰英, 1975, 『三國遺事考證(上)』, 塙書房.
- 須永敬, 2002, 「日韓國境域における聖母信仰史の民俗學的研究」, 神奈川大學 博士學位論文, 未刊行.
- 出石誠彦, 1949, 『支那神話傳説の研究』, 中央公論社.
- Hocart, A. M., *Kingship*, Oxford University Press, London, 1927.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성모 신화가 신라 고유의 성모(聖母)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창출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은 신라의 성모 신앙이 중국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종래의 견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설정되었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이것이 모화사상(慕華思想)에 의해서 만들어졌든지, 중국 서왕모(西王母)의 신라식 버전이라는 견해까지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성모(聖母)’라는 용어가 한자식 명칭이라고 해서, 반드시 중국 문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중국에서 여성에게 ‘성모’란 호칭이 사용된 경우는 (1) 샤먼과 (2) 열녀(烈女), (3) 측천무후(則天武后), (4) 황태후(皇太后), (5) 성모라는 이름을 가진 성모사(聖母祠)·성모묘(聖母廟) 등인 데 비해, 신라에서 사용된 ‘선도 성모’란 시조의 어머니를 지칭하고 있어, 이것이 시조모(始祖母)인 산신 신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래서 성모 신화가 신라의 고유한 성모 신앙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논의된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라에는 시조를 낳은 시조모(始祖母)를 숭배하는 성모 신앙이 있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외래의 여신(女神)이 도래하여 남편이 없이 낳은 아이가 시조가 되었다고 하는 성처녀 신화(聖處女神話)가 만들어졌을 것이란 추정을 하였다.

둘째, 일연은 이런 선도 성모(仙桃聖母)의 전승을 기록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운색하고 해석하기도 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다시 말해 그는 남편이 없이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신화적 표현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는지 하늘의 선녀들이 남편의 조복을 만들어주었다고 표현을 바꾸기도 하였고, 알영(闕英)을 낳은 계룡(鷄龍)을 성모의 현신으로 보기도 하였으며, 혁거세와 알영을 신모(神母)가 낳았다고 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셋째, 시조를 낳은 시조모에 대한 신앙은 후대에 그 기능이 확장되어 호국신의 기능도 아울러 가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신앙은 후대에 고려 태조의 어머니인 위숙왕후(威肅王后)가 성모로 받아들여졌고, 또 이성계가 왜구를 물리쳤다는 전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성모 신앙, 성모 신화, 삼국사기, 삼국유사, 선도 성모, 동신 성모, 시조모(始祖母), 동문선, 정견모주(政見母主), 위숙왕후(威肅王后)

Abstract

A Study on the Mythology of ‘Seongmo’(Holy Mother) of Silla

Kim Hwakyong

Honorary professor, Yeungnam University

This study was to uncover the fact that the myth of ‘Seongmo(Holy Mother)’ was created based on Silla’s unique belief in the ‘Seungm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vercome the conventional view which says that Silla’s belief in ‘Seungmo’ was influenced by China. It has been said so far that the belief had been affected by the glorification thought on China, or that it was a Silla-style version of the Chinese ‘Xīwángmǔ’ (西王母: Mother of King Seowang).

In China, traditionally, the term ‘Seongmo(Holy Mother)’ is applied for women to refer (1) Shaman (2) Women’s fidelity (3) Zé tiānwǔ hòu(則天武后), (4) Empress, (5) the sanctuary or shrine with the name of Seongmo(Holy Mother). While in Silla, the term ‘Seondo(仙桃) Seongmo’ was used to refer to the Mother of the Founding Father, which implies its close relevance to the belief of Sijomo(Mother of the Founding Father). The results of this study, made on the premise that the myth of the Holy Mother was created based on the unique faith of the Seongmo(Holy Mother) of Silla,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author assumes that a mythology of Seongmo(Holy Mother) that says a child of a foreign goddess who was born without a father became the Sijo(Founding Father) was created based on a belief in Silla of which worshipped the Sijomo(the Mother of the Founding Father).

Secondly, the historian Il-yeon interpreted in his own way when recording the lore of Seondo Seongmo(Holy Mother). For example, he might had felt difficult to accept the mythical expression that women giving birth to a child without husbands, and changed the expression to say that the heavenly women made her husband’s robe. Also, he regarded Gyeryong(鷄龍 : dragon of hen) who gave birth to Al-young as the real body of Seongmo(Holy Mother), moreover, he interpreted that the Godly Mother gave birth to the Hyukgeose and Al-young.

Lastly, the belief in Sijomo(Mother of the Founding Father) later expanded its significance to function as a patriotic god. It has been identified that this belief led to the tradition tale of worshipping Queen Wisuk, the mother of King Taejo of Goryeo, as the Seongmo(Holy Mother), and also to the triumph of Lee Sung-gye against Japanese pirates.

Keyword

The belief of the Seongmo(Holy Mother), The myth of Seongmo(Holy Mother), Samkuk-saki(The Three Kingdoms history), Samkuk-Yusa(The Three Kingdoms Legend), The Seondo Seongmo, The Seongmo of Dongshin. The Mother of Founding Father, Dongmun=seon, Jeonggyeon Moju(政見母主), The Queen of Wisuk(威肅王后)